

위험한 제과점 창업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구직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중에서 약 60% 이상이 제과점을 포함하여 식당 치킨전문점 분식점 등 먹는 장사를 으뜸으로 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간의 인기 드라마에서도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후 제과점을 개업하는 과정을 그려내는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소규모 창업으로 극복하는 내용이 위력적인 공중파 전파를 타고 실직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 탓만은 아니겠지만 요즘 제과학원에는 수강생이 넘친다. 이들중에는 취업을 대비하여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과점 개업에 뜻을 두고 등록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의 한 구청에서도 만 18세이상의 실직 남성을 대상으로 무료 제과제빵 과정을 신설하는 등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그만큼 제과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소규모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통신이나 신문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창업정보들이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어 이런 정보만 믿고 제과점 개업에 나선다면 적지 않은 창업자금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위험이 커 예비창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자수가 제일 많다는 한 컴퓨터통신의 생활/여성란의 성공사업유망정보를 보면 즉석빵제과점이 대단한 유망업종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들이 앞뒤가 안맞고 투자비용이나 마진을 산정이 엉터리 일색이어서 유료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정보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칠 우려가 높다.

실상은 이렇다. 즉석빵제과점은 많은 자본이 필요없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즉석빵이란 자영제과점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운 하고 있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판매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투자규모도 문제다. 유망업종이란 칭찬만 늘어놓고 점포비용까지 포함해서 5,8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정도의 투자로는 하루에 10만원 매출 올리기도 힘에 겨울 것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91쪽 창업드라마 참조) 하루 3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도 대략 1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알뜰 운영을 전제로 자기 인건비나 건지고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런 창업정보들은 한결같이 상세한 정황을 알려 주기보담 긍정적인 측면만 늘어놓고 누구나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선불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우려가 매우 높다.

더구나 마진율도 70%로 설명하고 있어 크게 남아도 순수마진율이 20% 남짓밖에 안되는 것을 무턱대고 70%나 남는다고 하니 도대체 돈벼락도 유분수지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턱도 없는 투자에다 남는 것은 엄청나니 이진 창업정보인지 폐업정보인지 분간이 안간다.

이런 정보는 컴퓨터통신뿐만이 아니라 한술 더떠서 신문 잡지 등에서도 여과없이 넘쳐나고 있어 이런 정보만을 믿고 창업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상인데 의외로 어지러운 사회분위기 때문인지 이런 정보가 설득력을 갖고 있다니 참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계]